

## 108. 택시운송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경추 3-4번 및 6-7번 추간판 탈출증

성별	남	나이	49세	직종	택시운수업	업무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**1. 개요:** 근로자 윤OO은 2001년 4월에 입사하여 6년간 택시 운수업 종사하던 중 ‘경추 3-4번 및 6-7번 추간판탈출증’으로 진단 받고 2007년 1월 17일 수술하였다.

**2.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:** 근로자 윤OO은 2001년 OO운수에 입사하여 약 6년 동안 택시 운전을 수행하였다. 근무형태는 2교대이며, 오후 3시, 새벽 3시 교대가 이뤄진다. 근무시간은 1일 12시간이나 실주행시간은 편차가 심하였고 최소 5.3시간에서 8.3시간을 주행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 전신진동에 대한 측정결과는 ACGIH의 노출기준 1일 8시간 0.5㎐A(8)을 초과하였지만 이는 쉬지 않고 운행을 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실제로 이보다 덜 할 가능성이 높다. 또한 경추부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3~5 Hz의 전신진동 역시 ISO 기준의 경계 수준이었다.

**3. 의학적 소견:** 근로자 윤OO은 2006년 12월 11일 택시 운전 중 갑자기 발생한 좌측 어깨 통증 및 팔저림 증상으로 일시 운전 수행을 할 수 없었고 2일간 휴식 후 찾아간 OO신경외과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좌측 경추 4번 신경근 눌림이 심해 수술을 권유받았다. 수술을 위해 2006년 12월 26일 OO병원 외래를 방문하였고 2007년 1월 17일 수술하였다. 과거력상 2003-2006년 동안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추돌 사건 7건, 보행 중 교통사고 1건이 있었다.

**4. 결론:**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윤OO은,

- ① 경추MRI 및 임상 소견, 수술 소견 상 경추 3-4번 경성 추간판탈출증 및 6-7번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,
- ② 전신진동평가 결과, 유해한 건강효과를 미칠 만큼의 전신진동에 노출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좌식작업이 약 6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.
- ③ 그러나 상병부위에서만 퇴행화가 촉진된 소견을 보여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,
- ④ 증상발생 시점 약 1-2년 사이에 3건 이상 차대차 후미충돌에 의한 편타성 손상이 있으며, 업무 외 경추에 유해한 스포츠 활동이나 업무 외적 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

근로자 윤OO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업무상 사고인 재해성 경추 손상의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